

탐마루 수박 '홍콩 수출길'

익산 생산 원예농산물 해외 수출 잇따라 수박 등 순차적으로... 100만불 매출 기대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예농산물에 대형 업체 입점에 이어 해외 수출길에 잇따라 오르면서 상품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탐마루 수박 수출길에 참여한 농민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수출되는 수박 1톤의 무게가 7kg 이상인 국내 소비 트렌드와 달리 홍콩에 이어 올해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공시장에서는 4~5kg의 작은 크기의 수박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는 작은 무게이지만 비파괴 당도 측정 시스템을 통과한 11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수박을 통해 홍콩 수출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탐마루 수박은 한국 수박으로 수출하게 되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2기작 수박인 7kg 이상의 씨 없는 수박의 경우 일본 시장으로 수출된다.

이밖에도 멜론과 배는 오는 7월부터 수출길에 오르며 연간 10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이 6월 한달 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미래 체험꾸러미' 운영

6월 한달 간 신청한 유·초등 대상 비대면 진행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이 6월 한달 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는 상반기 유·초등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23개원 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은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와 유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강사가 기후위기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후 스핀도야모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같이 장식품을 만들고 기후 행동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난해에도 코로

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뽕지락 기후변화 체험 꾸러미'라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번 금강미래 체험 꾸러미는 작년 비대면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현장체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나마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 부족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진되는 다른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촌관광 활성화 나서

7개 체험휴양마을 · 교육농장 관계자... 전문가 포럼 개최

익산시가 농촌관광 전문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14일 지역 농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7개 체험휴양마을과 교육농장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 활성화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우선 완주군관공매장 텃밭지원센터의 임재균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농촌관광 트

랜드와 코로나로 인한 관광 수요자의 여행 욕구 및 형태'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백승석 센터장은 가족단위·지역단위의 '소규모 농촌관광 트렌드 맞춤형 정책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다듬이 공원으로 농촌체험마을의 대표 사례를 낳은 완주군 창포마을 노재석 위원장은 현장사례 발표를 통해 수요자는 도시민임을 인지하고 도시민의 수요와 농촌의 어메니티의 연계성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익산교육지원청 하태양 주무관의 경

우 미래의 일꾼인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향하는 현 교육부 정책의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과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확여행) 실시 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을 시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New Normal)에 맞는 콘텐츠와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구도심 거점공간 창업지원 설명회

군산시상공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은 군산공설시장 3층 대강당에서 구도심 거점공간에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창업희망자들이 참여해 상황을 이뤘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됐다.

녹아있는 집포나 가옥 중에 오랜 기간 비어 있는 곳을 거점공간으로 선정할 후,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창업희망자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낡고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상권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고객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 및 기초조사를 통해 7곳을 거점공간으로 선정했으며,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들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하고 조만간 2차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추후 사업단 대표 온라인 홍보방 '군산중터수다' 및 '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르네상스사업단은 이번 창업설명회에서 시민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 보일러' 지원

익산시가 미세먼지와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4일부터 지난 1·2차에 이어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 추가로 약 1억1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보일러보다 약 79% 적게 배출하고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높은 보일러로 환경보호와 가스비도 28% 절감할 수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 받은 보일러이다.

시는 총사업비 4억2천만원 중 현재까지 3억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3차 지원에는 1억1천300만원이 투입된다. 세대별로 일반 가정은 20만원·저소득

층은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 또는 세입자로 건물 소유주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설치한 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가 우선이며, 저소득층 신규 설치자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익산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하거나 각 보일러 대리점 업체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전 신청의 경우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5436, 5443, 54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1호 나눔 리더 가입

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군산 1호 나눔 리더'에 가입했다.

14일 군산비정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강임준 시장과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 강임준 시장이 군산1호로 가입했다.

나눔 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시민이 가입할 수 있다.

/군산=김형봉 기자

익산시,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혜택 호응

익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요금 감면 기록을 살펴보면 결과 지난 2019년 1천611가구·9천200만원, 지난해 2천413가구·2억5천300만원, 올 상반기만 2천786가구·2억3천600만원이 지원됐다.

주요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이며, 이들에게는 매월 가정용 10㎡ 이상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에는 1억4천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개정된 조례 가운데 지원범위가 확대된 다자녀가구 감면을 통해 총 58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